자신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新 불교사자성어

㊶ 조고각하(照顧脚下)

조고각하, '자기 발(다리) 아래를 잘 살펴보라' 는 뜻이다.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나 법당, 선방이나 대중방(큰방) 섬돌 앞에 '조고각하' 라는 글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글자를 풀이하면 '조고(照顧)' 는 '돌아보다' , '살펴보다' 는 뜻이고, '각하(脚下)' 는 '발 밑' 또는 '다리 아래' 를 뜻한다. 즉 '자기 발(다리) 밑' 이나 '발아래를 살펴보라' 는 뜻이다.

'조고각하(照顧脚下)' 는 선종(禪宗, 선불교)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다. 물론 선원의 현관이나 법당, 큰방 등 신발을 벗어놓는 섬돌 앞에 쓰여 있으므로, 한자를 안다면 물을 것도 없이 '자신이 벗어 놓은 신발을 살펴보라' 즉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놔라' 는 말임을 알 수 있는데, 아뿔싸! 자신이 벗어놓은 신발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갈 지(之)' 자가 되어 있다면, 그 하나로 그의 인격의 절반은 노출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절반이 노출되었다면 그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의 단점이나 허물은 잘 발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단점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돌아볼 줄 모른다. 남에게만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논문 한 편을 쓸 정도로 예리하게 분석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할 정도로 모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기도한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항상 옳고 남은 틀리다는 사고는 금물이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고 내 말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장 옳다고 말하지만, 과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착각이지만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옳은 경우는 많아야 30%~40%를 넘지 못한다.

모든 분쟁이나 싸움의 발단은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데서 출발한다. 우월감, 에고 (ego)에서 비롯한 자기 존재에 대한 커다란 환상이고 착각이고, 과대망상증이다. 남의 허물이나 남의 일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조고각하의 의미이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격언으로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Gnothi seauton)' 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발밑을 관찰하는데 소홀히 하거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면 훌륭한 인격을 만들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조고각하의 본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는 뜻이다. 각하는 다리 아래지만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조고는 되돌아본다는 뜻으로서 반성적 의미다. 지금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는 안전한지 위태로운지, 또는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은 선(善)인지, 악인지, 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등등을 잘 살펴보고 일에 임하라는 뜻이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 성찰해 본 다음에 처신하고, 행동해야할 것이다.

필자가 10년 전에 항주 부근에 있는 선종사원인 천동사, 아육왕사 등을 답사한 적인 있다. 천동사 선당(禪堂)에 갔더니 한쪽 기둥에는 '염불자수(念佛者誰, 염불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화두가 붙어 있고, 한쪽 기둥에는 '조고각하' 라는 말이 붙어 있었다. 풀이하면 '염불자수' 라는 화두를 들고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 자신을 보라. 조고각하.

선불교에서 조고각하의 의미는 '지금 당장 너 자신을 살펴보라' , '너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는 말로서, 너의 본래면목을 찾으라는 훈계이다. 심외무법(心外無法) 즉 '마음 밖에 별도로 찾아야할 법(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밖을 향해 구하지 말고 안으로 자기의 본성을 살펴보라(廻光返照)' 는 뜻이다.

또는 '너는 지금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방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치열하게 화두를 들고 있는가. 졸고 있거나(昏沈, 혼침) 번뇌 망상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掉擧, 도거).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찾는 데 매진하라' 는 뜻이다. 오늘날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자성어이다.

조고각하는 각하조고(脚下照顧), 간각하(看脚下, 발 아래를 보라)라고도 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본분초료 주지 못한 대룡

〈本分草料〉



격절록 강설

㊶ 보수개당 3

[評唱 3]

雪竇自蜀出峽 先見北塔 一住十年. 已有深證 離北塔 到大龍會中. 作知客亦多時. 大龍一日上堂 師出問 "語者默者不是非語非默更非 總是總不是拈却 大用現前 時人知有 未審大龍如何" 龍云 "子有如是見解" 師云 "這老漢瓦解冰消" 龍云 "放你三十棒" 師禮拜歸眾. 龍却喚適來問話底僧 師便出. 龍云 "老僧因什麼瓦解冰消" 師云 "轉見敗闕" 龍作色云 "呵呵耐呵耐" 師休去.

설두(雪竇, 설두중현, 980~1052)는 촉(蜀)으로부터 협(峽)으로 나와 먼저 북탑(北塔, 지문광조)을 친견했다. 한 번 머물면 10년을 있었는데, 깊이 증득한 것이 있어 북탑을 떠나 대룡(大龍, 대룡지홍) 회상에 이르렀다. 여기서 지객(知客)의 소임을 맡고는 오랜 세월 있었다.

대룡이 하루는 상당(上堂)을 하자, 설두가 나와 물었다.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옳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도 침묵하지 않는 것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옳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집어내서 대용이 앞에 들어나야 그 때 사람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룡 스님께서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룡이 말했다.

"그대에게 이와 같은 견해가 있었군!"

선사가 말했다.

"이 노장이 기왓장이 깨지듯 얼음이 녹듯 하시네."

"대룡이 말했다.

"그대에게 30방을 치리라."

(그러자) 선사가 절을 올리고, 대중 속으로 돌아갔다.

대룡이 조금 전에 물었던 스님을 부르자, 설두가 바로 나왔다.

대룡이 말했다.

"노승이 어째서 기왓장이 깨지듯 얼음이 녹듯 했는가?"

설두가 말했다.

"보면 볼수록 낭패입니다."

대룡이 불쾌한 기색을 하며 말했다.

"견디기 어렵구나, 견디기가 어려워(呵耐呵耐)!"

설두가 바로 쉬었다.

雪竇後行脚到南嶽 舉似雅和尚 雅云 "大龍何不與本分草料" 師云 "和尚更須行脚" 後大龍小師 在浙中相見 謂曰 "何不與先師燒香" 雪竇云 "昔僧問先師 色身敗壞 如何是堅固法身 先師云 山花開似錦 澗水湛如藍 我誦此因緣 報他恩了也"

설두가 뒤에 행각 중에 남악(南嶽)에 이르렀는데, 앞의 일을 들어 아(雅, 복엄양아) 화상에게 말했다.

아 화상이 말했다.

"대룡이 어째서 본분초료(本分草料)를 주지 않았는가?"

설두가 말했다.

"화상! 다시 행각 하셔야 합니다."

뒤에 대룡의 제자(小師)를 절중(浙, 절강성, 저장성)에서 만났다.

대룡의 제자가 말했다.

"어째서 선사(先師, 대룡)께 분향하지 않습니까?"

설두가 말했다.

"지난 날 어떤 스님이 선사(先師, 대룡)께 묻기를 '색신은 무너지거니와 어떤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법신입니까?' 라고 묻자, 선사께서 이르기를 '산에 꽃이 피니 비단 같고, 골짜기에 물이 맑으니 쪽 같구나!' 라고 했다. 내가 이것을 외운 인연으로 선사께 은혜를 갚았다."

※본 보수개당 3편은 설두 스님의 선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다음 4편으로 보수개당이 이어집니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㊶ 이해의 길 21

대승불교 일으킨 주역들

어떤 우연한 만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인연이라 부른다. 물론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 악연이 된다. 그런데 하나의 우연이 훗날 엄청난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면, 그 우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승불교의 발생과 붓다의 장례식이라는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붓다의 다비식과 대승불교는 과연 어떤 인연이 작용하고 있을까?

붓다는 자신의 장례를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에게 맡겼다. 다비가 끝난 후 마가다와 코살라를 비롯한 여덟 나라에서 온 사신들은 붓다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사리를 모셔가겠다고 다툼을 벌였다. 결국 그들은 공평하게 1/8로 나누어 붓다의 사리를 가지고 그들 나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불탑(佛塔)을 세워 사리를 모시고 붓다를 추억하였다. 그곳이 훗날 대승불교를 일으킨 역사적 공간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파불교는 지나치게 학문적인 태도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멀어졌다. 불교를 알고 싶어서 절에 찾아가도 비구들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자기완성을 위한 공부에도, 영원불변하는 75개의 법(法)을 연구하기에도, 자기 부파의 독립적인 논서를 완성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갈 곳을 잃은 재가자들이 의지할 곳은 한 곳밖에 없었다. 바로 붓다의 사리를 모신 불탑이었다.

당시 절은 승려들이 관리했지만, 탑은 재가자들이 별도로 운영하였다.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날 즈음 인도 전역에는 8만 4천 개의 탑이 있었다고 전한다. 수많은 탑을 세우는 데 경제적으로 지원한 인물이 바로 아소카왕이다. 그 덕분에 불탑을 순례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절에서 발길을 돌린 불자들은 탑에 찾아와 꽃과 향을 바쳤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붓다를 예경하였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비는 등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곳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불교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들은 붓다의 발자국이나 법륜(法輪), 보리수, 일산 등을 탑에 조각하여 순례객들에게 붓다의 생애를 전해주었다. 당시는 붓다와 같은 위대한 인물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풍습 때문에 붓다의 모습을 직접 그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을 통해 불교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법사(法師)의 원형이다. 이처럼 탑을 중심으로 모인 재가자들이 붓다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대승불교의 주역들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탑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 중에 붓다의 생애를 기록한 찬불승(讚佛乘)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붓다의 생애뿐만 아니라 전생담(前生譚), 즉 전생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자타카(Jataka)라고 한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달 속의 토끼가 방아를 찧는다는 이야기도 자타카에 나오는 내용이다. 달 속의 토끼가 바로 붓다의 전생 모습이다.

그렇다면 찬불승들은 왜 이런 자타카를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붓다의 위대한 인격에 대한 흠모가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붓다의 삶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인격이 6년 동안의 수행으로 가능할까?' 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그들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붓다가 수많은 겁(劫)의 시간 동안 토끼나 임금, 사문 등 여러 모습으로 윤회하면서 수행에 수행을 거듭한 결과 금생에 싯다르타로 태어나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위대한 삶을 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자타카였다. 붓다의 전생담을 만들어 불교를 대중들에게 널리 전한 찬불승 역시 대승불교를 일으킨 주역에서 빠트릴 수 없는 존재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탑은 대승불교의 상징이며, 이곳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불교운동의 주역들이다. 과연 탑이 없었다면 대승불교가 가능했을까? 그래서 더욱 궁금해진다. 붓다는 대승불교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장례를 재가자에게 맡긴 것인지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